
韓國發明特許協會의 나아갈

工業所有權 分野 先導 및 發明特許분

發明特許의 産室

먼저 發明特許의 産室이라 할 수 있는 韓國發明特許協會의 創立 13周年을 진심으로 祝賀한다.

韓國發明特許協會는 지금부터 13年前인 1973年 10月 18日 第1次 石油波動으로 國內外經濟가 極甚한 打擊을 받고 있던 어려운 時期에 社團法人 韓國特許協會(初代會長 朱耀翰)란 名稱으로 創立되었다.

그 當時까지 工業所有權關聯團體로서 大韓發明協會와 大韓商標協會가 각각 存續하여 왔으나 一般國民이나 企業 그리고 政府까지도 工業所有權에 대한 關心과 認識이 낮았던 탓으로 架橋의 인 役割을 해야 할 이들 團體가 財政上的 어려움으로 그 本來의 機能을 다하지 못하게 되자 韓國特許協會의 創立과 더불어 이들 團體를 吸收하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우리나라가 經濟開發計劃에 의한 60年代의 成長을 바탕으로 70年代에도 持續的인 高度成長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技術開發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先進技術의 導入과 消化改良 그리고 特許化가 무엇보다 時急한 課題라 생각하여 이를 先導할 수 있는 名實相符한 工業所有權團體를 民間主導로서 創設하자는 氣運이 일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의 直接的인 動機는 우리나라가 모방技術에만 依存해오던 狀況아래서 韓·日間의 懸案의 問題로 미루어오던 工業所有權協定을 74年 1月 1日에 締結한다는 發表가 있어 이에 관한 政府의 準備作業은 물론 우리 業界의

受容態勢를 하루속히 갖추어 물밀듯이 들어올 日本의 特許出願에 對處하려 하는데 있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背景과 政府 및 業界의 與望에 副應하여 設立된 韓國特許協會는 우리나라의 發明振興事業을 積極促進하고 發明의 企業化를 助長하며 工業所有權에 관한 制度發展과 産學協同의 實効를 提高함으로써 産業界技術革新을 통한 國民經濟成長에 寄與한다는 目的 아래 關聯事業을 展開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汎國民的으로 發明思想이 昂揚되고 工業所有權에 관한 認識을 높이는데 큰 役割을 하여 왔다.

發明의 重要性 浮刻

돌이켜 보건대 韓國特許協會가 創立된 初期에는 一般國民은 물론 企業을 맡고 있는 最高經營者들까지도 工業所有權에 대한 認識이 전혀없어 技術開發의 前後段階에서 必須的으로 活用되어야 할 工有所有權 問題를 度外視하는 傾向이 없지 않았다.

그리하여 協會는 一般에게는 發明의 重要性을 浮刻시키는 弘報活動을 펴면서 研修講座·세미나·講演會 등을 통해 國內外的으로 惹起되었던 特許紛爭과 각 企業이 體驗한 成功 및 失敗事例들을 提示하는 努力을 아끼지 않았다.

開發의 成敗가 곧 우리나라의 運命에 直結되고 技術革新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強調하신 全斗煥大統領각하의 뜻을 받들어 韓國發明特許協會(名譽會長 全敬煥, 會長 具滋暻, 常勤副會長 李泰燮)로 改稱, 우리나라의 發明風土를 振

方向 造成해야

洪 載 日
(辨 理 士)
(本會 發明教室 講士)



作시키고 發明의 企業化를 促進시키는데 寄與하고자 意慾의인 再出帆을 함으로써 「發明의 날」을 復活하고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開催, 우리商標展示會開催, 發明試作品製作支援, 常設發明品展示館(發明獎勵館)設置, 特許·實用新案海外出願費支援 등 새로운 事業들을 推進하면서 發展을 거듭하고 있음은 工業所有權界로서는 매우 鼓舞的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發明風土造成에 앞장서야

이제 韓國發明特許協會는 지난 13年間の 業積과 經驗을 土臺로 우리나라의 工業所有權分野를 先導하면서 發明品 造成을 위한 여러가지 事業을 할 때가 왔다고 본다.

더우기 우리나라가 技術立國을 통한 國力培養을 위해서는 新技術을 開發蓄積하여 이를 널리 企業化해서 對外競爭力을 높이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切實한만큼 國民이 發明에 대한 關心과 發明人의 技術開發에 대한 必要性을 가질 수 있게 하고 企業과 發明人의 技術開發에 대한 支援體制를 갖추는데 注力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協會는 長期的 眼目에서 段階的으로 事業하여야 하는데 그 첫째로는 모든 國民 특히 자라나는 學生과 主婦들에게 平素 공부하며 生活하는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着想하려 하는 意慾을 갖도록 弘報活動, 課外指導, 캠페인 등을 積極 퍼 나가면서 優秀한 科學發明品을 全國에서 募集·施賞하는 獎勵事業이 擴散, 推進되어야 하겠다.

이 事業은 經濟發展途上에서 西歐先進國, 특

히 이웃 日本이 施行하여 成功한 實例인데 해를 거듭할수록 높은 水準의 아이디어와 發明品이 쏟아져 나와 産業技術發展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事實이다.

둘째는 企業發明을 創出할 수 있는 雰圍氣造成과 發明된 新技術을 生産·販賣·輸出등에 戰略化하는 經營體制를 하루속히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最高經營者의 工業所有權에 대한 認識을 높이는데 力點을 두어야 한다.

셋째는 發明振興 및 獎勵事業의 活性化方案이다. 지금까지는 「發明의 날」 復活과 함께 發明思想을 昂揚鼓吹시키기 위한 紀念行事와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開催, 發明試作品製作支援, 常設發明品展示館(發明獎勵館)設置, 特許·實用新案海外出願費支援, 發明特許品流通販賣展示會開催 등 여러가지 關聯事業을 함으로써 發明人의 士氣振作과 發明品의 企業化를 促進시키는데 큰 役割을 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엇보다 發明의 企業化를 위한 政府의 財政支援(發明振興基金造成), 關聯機關인 技術開發(株)·開發投資(株)·中小企業振興工團 信用保證基金에서의 支援등은 물론 大企業에서의 投資까지도 連結해 줄 수 있는 特許流通促進을 위한 活動이 더 切實하다고 하겠다.

네째는 앞서서도 言及했듯이 兒童·學生들에게 發明思想을 注入시키기 위한 發明教育和 實習을 課內에서 두루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大學科目, 國家考試科目 등에 必須 또는 選擇으로 編成되도록 政府當局과 不斷한 協議를 거치는 活動이 要望된다.

끝으로 企業 및 發明人의 國內外出願 및 權利保護, 特許權活用등에 關連되는 關係法令 및 制度를 改善할 수 있도록 政府當局에 積極 建議하여 이들의 隘路點을 打開하는데 盡力함은 물론 現在 死文化되고 있는 發明保護法의 復活에도 힘을 기우려 企業界나 發明界의 實情과 意見이 充分히 反映되도록 하는 努力 또한 期待된다.

아무쪼록 이제 年齡이 13을 헤아리게 된 韓國發明特許協會가 우리의 指向하는바 대망의 先進祖國建設에 礎石이되어 永遠한 發展을 거듭하면서 國力伸張을 위한 工業所有權 關聯機關으로서 所任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